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sfo.org> ◆



# 평화의 도구

(제 149 호)

06년 1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올리아),sfo (714)870-7650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박 영환(빅토리오),sfo (714)638-194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올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91@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오):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또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

##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1월 1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음식 봉사하였습니다.

### ■ 재정 보고서

형제회 재정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 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자 모두는 년회비(Fair Share)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김 도미니꼬 신부 방문

김 도미니꼬 신부님이 지난 8일-17일 이곳 미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회원 및 후원자 들과의 만남을 갖었습니다.

### ■ 김 도미니꼬 신부 방문

김 도미니꼬 신부님이 지난 8일-15일 이곳 미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회원 및 후원자

들과의 만남을 갖었습니다.

## 일년을 시작할 때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은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적당한 일이 아니라 밝게 웃은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에는 '믿음'을 생각하세요  
한 달을 내가 확신하는 일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 했던 일들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

일 년을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  
일 년은 꿈을 심고 가꾸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일 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

- 정용철의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 -

\*\*\*\*\*

【프란치스코 러시아 선교】

## 인사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원의 모든 분들에게 주  
님 성탄을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 이곳 러시아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한 일년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곳 오렌지카  
운티에서는 몇 십년 살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니.

사실 이제는 한국을 떠난 지, 8년이 되어갑  
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자주 여러분들이 말  
씀하신 이민 생활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저는 한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  
다. 흔히 말하는 이방인..

전 이 말을 그리 좋은 말이 아니라고 느꼈는  
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  
서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구나, 하느님 나  
라에서 온 이방인, 그래서 이 세사에서 잠시 살  
다가 다시 우리가 온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이제 많이 적응이 되었습  
니다. 늘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곳에서의 생활도

많은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줄 분들이 있다는  
그것이 이곳 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곳 러시아 땅  
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05년 12월  
여러분의 아들 도미니코 형제, OFM

\*\*\*\*\*

## 러시아 우수리스크 프란치스코 행려자 복지관 건립에 대한 나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프  
란치스코의 행려자 복지관]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자 합니다.

### A. 추진 예정인 복지관

러시아의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에 행려자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다.

- 숙박 : 약 100명의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규  
모이다. 단 첫 해에는 30-40명의 인원을 숙박할  
예정이다. 운영진들과 봉사자들의 경험과 과정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숙식 및 배식 : 숙박하는 이들을 위한 하루 3  
번의 숙식비와 함께 지역의 행려자들을 위한 식  
당에서 주 4일(또는 5일) 배식을 준비하고 있다.

- 재활프로그램: 우수리스크 현지에는 약 600여  
명(지역 복지과 통계)의 행려자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60%)은 거처할 곳은 있으나, 어려가  
지 이유로 인해 사회적응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기에 이들이 행려자로 전락하기 이전의 사회복  
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기간에  
받은 집은 있으나, 집세 및 식사할 경제적 능력  
이 없어, 전기가 끊어졌거나, 집세를 내지 못하  
는 현실로 인해 멀지 않아 행려자로 전락할 단  
계에 있다.

## 복지 내용:

1. **배식** : 주 4회(또는 5회)로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식,
2. **기초 생계를 위한 나눔** :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형 배급과 부모의 관리 부족(주로 알콜 중독성으로 인해)과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나눔과 집은 있으나,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배식.
3. **봉사자 책임자 교육** : 장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며, 책임자 양성을 통해 차후 현지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립할 예정임.

## B. 복지관 추진경위 및 배경

### 1. 사업추진 경위

2000년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러시아 선교사 파견

2001년 : 11월 작은 형제회의 러시아 선교단 소속의 신부 및 수사들이 연해주의 우수리스크 시에 거주

2002년 : 우수리스크 본당을 위한 작은 건물 구입, [그리스도 탄생 성당] 사목 시작 (현재 영세자 및 가톨릭 신자 50명, 주일 미사 30여명)

2003년 :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우수리스크 시장과 및 공무원과의 수차례 만남

2003년 말- 2005년 7월 : 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허가 서류 준비 및 현지의 행려자 사회복지자를 위한 준비

2005년 8월 : 사회복지관 건립 시작 -현재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공사 중단

2005년 11월 : 내년 공사를 위한 건축 자재 구입..

2006년 4월 : 건축 공사 시작 예정..

### 2. 사업추진 배경

러시아의 사회주의 시절에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복지 시설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0년 사회주의를 붕괴와 함께 러시아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 수록 빈부의 격차

가 심해지면서, 행려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추운 겨울이면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동상으로 인해 신체를 절단하곤 한다. 또한 부모들의 알콜 중독으로 아이들이 길에 나와 동냥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고아원이나 그 밖의 몇몇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현지에는 행려자(노숙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경험들이 없다. 그러기에 우수리스크 시와 함께 행려자 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한 시장과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행려자 사업은 다른 어떤 일보다 현지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 사회에서 행려자들을 위한 사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프란치스코 사회복지관]은 현지의 러시아 공무원의 말에 따라, 연해주에 있을 '역사적인 건축' 이 될 것이다. 소외된 이들 중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기로 희망하는 작은 형제회 신부, 수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로 부터, 우수리스크 시 안에 있는 병원의 미 완공 건물을 무상으로 받고, 부지를 받았다. (부지에 대한 정확한 임대나 구입을 건축 후, 시와의 계약이 필요한 상태) 미 완공 건물은 사회주의 시절에 병원의 세탁실 및 건조장으로 건축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건축이 중단 되었고, 이것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미건축 빌딩과 함께 복지관을 건축하고자 한다.

## C. 사업추진 여건

### 1. 주변여건 및 환경

러시아의 연해주는 한국과 인접한 곳이며, 우수리스크는 인구 200,000명이 살고 있다. 또한 스탈린의 의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후, 돌아온 고려인들이 약 15,000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매달 올라가는 생활용품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빈부의 격차를 높이고 있으며, 복잡한 현지의 사정으로 인한 문 닫은 공장들로 인해, 일자리가 많지 않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은 기초 생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아가는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많은 사람들의 알콜 중독과 무분별한 성 생활로 인한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갈수록 행려자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어떤 여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매 겨울에 수십명의 행려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길에서 죽어가고 있다.

#### D. 복지관 건축 기초 공사 중인 사진

##### 1)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건물



##### 2) 기초 공사 중..



##### 3) 행려자 복지관 정면 조감도.



이곳이 행려자들이 머물 복지관입니다.

현지의 공사비가 2년전에 시작할 때보다 2-3배 정도로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현지의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